

與 “전공의, 더 늦기전에 현장 복귀하라”

진료거부 중단 촉구... “환자 떠난 의사, 존재할 이유 없어”

김태년 원내대표 “단호히 대응”... ‘의사 자격 박탈’ 국민청원도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1일 코로나19 재확산 와중에도 의료계가 파업을 이어가자 “국민을 생각하라”며 파업 중단을 촉구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계의 진료 거부로 많은 환자의 피해가 있다. 의료인들이 국민 신뢰를 상실하는 건 전부를 잃는 것”이라며 “집단행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약속과 인내에도 집단행동을 계속한다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을 주문한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답보로 정치 투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더 늦기 전에 의료 현장에 복귀하라”고 요구했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현장에서 간호사가 의사들의 진료 행위를 편법으로 하고 있다”며 “전공의 여러분의 집단행동은 파업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 진료 거부다. 환자 곁을 떠난 의사의 존재 이유를 어디서 찾겠냐”라고 지적했다.

치과 의사 출신인 신동근 최고위원은 “어떤 명분도 환자 목숨과 생명보다 먼저일

수 없다”며 “정부가 의료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책 당사자인 의료인들과 보다 소통하고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염태영 최고위원은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에서 “정부 원칙이 있는데, 지금 의료계의 진료 거부를 이끄는 분들이 과연 대화 협상에서 최소한 국민을 생각하는 게 있는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녁’에서 “환자를 외면한 어떤 파업은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우선 생명을 살리고 봐야 하는 일”이라고 했다.

유기홍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10개 국립대학병원 수술 건수가 절반 이상 줄었다

고 소개하면서 “국립대병원이 이 정도면 다른 종합병원은 더 심각할 수 있다. 업무에 복귀해 협의에 임해달라”고 호소했다.

의료진의 집단행동이 이어질 경우 의사 자격 박탈 등 응분의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의 비례정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공동대표를 지낸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페이스북에 의사 자격 박탈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링크를 공유하며 “정부는 영을 세우라! 법과 원칙을 위반하며 공공에 피해를 주는 사람들에게 엄격함을 보여라.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는 의료진 등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靑 국정홍보비서관에 광주 출신 윤재관 비서진 6명 개편... 신설된 청년비서관, 순천 출신 김광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1일 정부비서관에 민주당 배재정 전 의원을, 국정홍보비서관에 광주 출신의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을 각각 내정했다. 아울러 신설된 청년비서관에 순천 출신의 김광진 정대변인을, 기후환경비서관에 박진섭 전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을, 안보전략비서관에 장용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을, 평화기획비서관에 노규덕 안보전략비서관을 발탁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청와대 인사를 발표했다.

배재정 정부비서관은 제19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국무총리로 재직할 때 비서실장을 지내는 등 폭넓은 의정활동 경험을 갖췄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정부비서관에서 청년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기는 김광진 비서관은 청년과의 소통·협력 추진 및 청년정책 조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윤재관 국정홍보비서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때부터 청와대에서 근무하며 탁월한 업무 성과를 인정받았고 그만큼 국정철학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시민사회수석으로 자리를 옮긴 김재남 전 비서관의 후임인 박진섭 기후환경비서관은 환경단체와 에너지 관련 공사 근무 경험까지 두루 갖춘 균형감 있는 환경전문가라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장용석 안보전략비서관은 국정원과 국회의장실 등에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정부적 감각을 갖춘 안보전문가다. 노규덕 평화기획비서관은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안보전략비서관 근무 경험까지 갖춘 관련 업무를 잘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신임 비서관들은 1일자로 임명된다.

지난달 초 서훈 국가안보실장 임명으로 시작된 청와대 비서진 개편은 이번 연쇄 이동에 따른 빈자리를 모두 채우는 것으로서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평이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가 지난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기전담식에서 참석, 김영주 전국대의원대회 의장으로 부터 당기를 받고 있다. 왼쪽부터 양향자, 노웅래, 김종민 최고위원, 이낙연 대표, 김영주 의장, 김태년 원내대표, 염태영, 신동근 최고위원. /연합뉴스

이낙연 “근로장려세제 확대·재난지원금 최대한 빨리”

첫 최고위 주재... “민생·경제 회복 최우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신임 대표는 지난 31일 “국민 여러분 선택의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첫 최고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 상황은 매우 위중하다. 위기라는 말로도 부족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코로나 극복, 민생 지원, 미래 준비, 통합 정치, 혁신 가속화 등 국민의 5대 명령을 이행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건 국민 극복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와 효과”라면서 “내일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되는데 연말까지 3달이 국민과 저희에게 몹시 중요하다. 5가지 명

령에서 결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국회 당 대표실에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로 고통을 더 많이 받는 분들, 생계에 중대한 위협이 생긴 분들에게 맞춤형 긴급지원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이번 주 빠른 시일 내 당정책 회의를 갖고 민생지원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생 지원 방안 중 하나로 “근로장려세제(EITC)를 대폭 확대하고 앞당겨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재난지원금 등의 지원 시기에 대해서 “시기는 가능한 한 빠를수록 좋다”고 했다.

이에 앞서 이 대표는 14일간의 자가격리를 마친 뒤 자택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마치 야전병원에 머물다 전장에 나선 것 같

다”며 “격리의 짐은 벗었지만, 국민의 짐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며 소회를 밝혔다. 이어 “우리 보건의료 체계가 잘 짜여있고 종사자들이 매우 헌신적으로 일한다는 것을 이번엔 다시 확인했다”며 “거듭 감사드린다”고 했다. 또 “국민 여러분의 고통이 얼마나 크실지 아프도록 잘 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전쟁을 반드시 승리하고 민생과 경제도 빨리 회복시킬 것”이라며 “함께 견뎌냅시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사무총장에 박광은 의원, 정책위의장에 한정에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또 당 대표 몫의 지명직 최고 위원에는 박홍배 한국노총 금융노동 위원장, 박성민 청년대변인을 임명했다. 대변인단에는 허영, 강선우, 신영대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통합당 새 당명 ‘국민의힘’ 잠정 결정... 내일 의총

미래통합당의 새 당명이 ‘국민의힘’으로 잠정 결정됐다.

통합당은 지난 31일 비상대책위원회의와 온라인 의원총회를 통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보수 야당이 당명을 변경하는 것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등이 합당해 미래통합당을 출범시킨 지 6개월여 만이다. 총선 참패 후 쇄신과 변화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통합당은 다음 달 1일 상임전국위원회와 2일 전국위원회를 거쳐 새 당명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통합당은 새 당명과 별도로 당 색과 상징도 추가로 준비해 다음 달 둘째 주에 공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호남 대변인 양향자’ 기대 크다

민주 지도부 자력 입성... 호남·경제·여성 ‘유일’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양향자(광주 서구을)의원이 새롭게 출범하는 이낙연 당 대표 체제의 최고위원으로 입성해 당 지도부를 맡게 됐다.

양 의원은 지난 2016년에 이어 두 번째로 최고위원이 됐다. 지명직이나 여성 할당이 아닌 전당대회를 통해 자력으로 2번씩 당 지도부에 입성하면서 양 최고위원의 정치적 저력을 입증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양 최고위원은 새롭게 출범한 민주당 지



도부 중 유일한 여성 최고위원에, 유일한 호남 지역구 의원인 만큼 여성과 호남을 대변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됐다.

양 최고위원은 “다시는 호남 홀대란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호남 대변인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것이다”고 의지를 다졌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여의도 브리핑

이형석 “5·18 특별법 처리·국가 균형발전 전력”

최고위원 임기 마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임기를 마친 이형석(광주 북구을) 의원은 지난 31일 “5·18 외국 처벌법 처리, 국가 균형발전, 정권 재창출에 전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해한 전 대표와 추미애 전 대표 체제에서 두 번에 걸쳐 약 32개월 동안 최고위원을 역임하며 매주 KTX를 타고 광주에서 서울을 왕복, 지구 5바퀴 반을 (돌만큼) 씬 없이 달렸다”며 “두 번의 최고위원을 역임하는 동



안 힘들기보다는 가슴 벅찬 일이 더 많았다”고 술회했다.

또 “앞으로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국민들의

원문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며 “특히 5·18 역사 외국 처벌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5·18 민주화운동을 외국·범위하는 세력이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24시간 상담가능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출장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돌고개 2번출구 대형약국 3층